

3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출애굽기 · 레위기

요한복음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창립 100주년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출애굽기 · 레위기

요한복음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③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은총의 자녀가 되어서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여 지게 하소서.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1)

기근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보이십니까?

기근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천대하기에 황량해져가는

이 시대를 향해 담대히 외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행 16:31)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은총의 자녀들을…

이 은총의 자녀들이 세워가는 교회에는

보혈의 복음으로 풍성합니다.

보혈의 증인들로 넘쳐납니다.

2007년 3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 5:39)

지금은 사순절!

(2월 21일~4월 7일)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재차 언약을 회복했던 전 장(32,33장)에 이어 이 장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가 소개됩니다. 즉 이 장에는 언약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 돌비를 마련하여 시내산에 오르게 하신 후(1~4절), 당신의 존재를 자상히 계시해 주셨고(5~7절), 약속의 땅을 재확인 시키시고(10절), 약속의 땅에 거하는 우상숭배자들과의 통교를 금지시키셨으며(11~17절), 각종 절기와 제사의 준행을 명하셨습니다.(18~28절) 이와 더불어 언약을 재확인하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 신령한 광채가 발하여 수전으로 그 얼굴을 가리게 된 기이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29~35절)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돌비를 다시 새겨 주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변함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언약 갱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새로운 십계명 두 돌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지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느끼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조차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새 언약의 돌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출 34:1)

기도 제목 ① 소망 중에 늘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지난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바 있으나 전하지 못했던 성막 건축에 관한 여러 내용들(25~31장)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즉 이 장은 거룩한 사역에 앞서 깊이 유념해 두어야 할 안식일 준수 규례(1~3절)와 성막 건축에 소용될 각종 기물들을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4~9절)과 지정된 위치에 따른 성막의 각종 기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0~19절) 뒤이어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온갖 예물들을 바치는 장면(20~29절)과 끝으로 성막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사가 부여되는 장면(30~35절) 등이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사역은 단지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진실함으로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양심을 속이는 자입니까?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한 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출 35:1)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구역에 배에 참여하는 구역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았으나(25~31장)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성막 건축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즉 성역(城役)이 시작된 이 장에는 성막 건축을 맡은 일꾼 브살렐과 오홀리압 및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실(1~2절)과 백성들이 성막에 소용될 예물들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풍성히 바침으로써 예물 수납을 중단한 아름다운 장면(3~7절)과 이미 26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막의 덮개인 네 양장과 널판과 간막이 휘장 등이 제작되는 장면(8~38절)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선 성막의 식양이 제시된 내용(25~31장)은 모세의 주도하에 이 장에서부터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절대 의지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실로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만큼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같은 정성을 가지고 하십니까? 혹 맡겨진 일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맡겨진 자기 직분에 충실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 매일의 일을 성실히 해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 폭 양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출 36:8)

기도 제목 ①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막 건축에 있어 유능한 일꾼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성막의 외형과 골격을 이루는 부분을 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36장) 성막 건축은 이 장에 이르러 성막의 내부에 안치될 성물(聖物) 제작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즉 이 장에는 성막 기물 중 가장 핵심적인 언약궤(법궤)의 제작(1~9절)과 성소 복편에 안치될 진설병 상과 그에 딸린 대접, 순가락, 잔, 병 등의 제작(10~16절) 및 성소 내부를 밝혀줄 등대와 그에 딸린 불집게, 불뿔 그릇 등의 제작(17~24절)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0장에서 계시된 바 있는 분향단과 관유와 거룩한 향 제작(25~30절) 장면이 아울러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성막 내부의 기물들은 하나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류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기물들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계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의 성물들, 즉 진설병 상(床), 등대 그리고 분향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성물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모셔둘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성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분향단에서 여호와께 향을 피운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중보자가 되시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이며”(출 37:6)

기도 제목 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진심으로 기억하며 참여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앞 부분(36,37장)에서 성막의 본체와 그 성막 안에 안치될 성물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장에는 27장 계시에 의지해서 성막 뜰에 안치될 성물들과 또 성소의 테두리를 결정할 울타리가 제작됩니다. 즉 이 장에는 제사에 있어 매우 긴요한 번제단과 그에 딸린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1~7절)와 성막 봉사를 담당한 제사장들의 의식적 정결을 위한 씻는 그릇인 물두명(30:17~21절)과 성소와 외부를 구분할 울타리가 제작됩니다.(8~20절) 이와 함께 지금까지 성막 건축에 소요된 각종 기물과 그 기물을 가지고 제작에 참여한 일꾼들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가 소개됩니다.(21~31절) 이처럼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들이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소개된 것은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정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해 두십니다.

번제단은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형성케 하는 용서와 화해와 교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니까? 성막 뜰과 외부를 구분할 울타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과 구분할 울타리를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보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출 38:22)

기도 제목 ①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막 본체 제작으로부터(31장) 시작된 성막 건축 작업이 이 장에 이르러 마침내 종결되고 있습니다. 즉 앞 부분에서 성막과 성막의 내·외부에 안치될 각종 성물들이 제작되었는데 이제 이 장에서는 그 성막에서 봉사 할 사명을 부여받은 대제사장이 착용할 복장(제사장들의 복장은 대제사장의 그것에 준하여 만들어졌을 것임)이 만들어지고(1~31절, 28:6~43절) 그 직후 성막 건축의 두 주역이었던 브살렐과 오홀리암을 위시하여 수고한 모든 일꾼들이 건축을 종결짓고 그 동안의 모든 경과와 결과들을 건축의 총감독이라 할 수 있는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32~43절) 한편 성막 건축자들의 보고에서 살필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성막 건축의 모든 작업을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작업의 제 1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된 자의 삶의 기준이요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냄새나고 더러운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찬란하고 눈부신 하나님의 의(義)를 입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세상의 누더기 옷을 부러워하여 누더기 옷을 걸친 자처럼 살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출 39:1)

기도 제목 ①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피물은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시내산 상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25~31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은 일꾼들에 의하여 성막 건축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어 마침내 한 점 실수 없이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35~39장) 본 장에서는 이같은 성막 완성에 즈음하여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막을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즉 이 장에는 성막 봉헌식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례(1~11절)와 성막의 주봉사자인 제사장의 성별과 위임식(12~16절), 성막의 완성과 봉헌식(17~33절) 및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함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준이 내려지는 장면들이(34~38절) 소개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자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인 성막의 완공과 거룩한 인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비로소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요 1:14) 우리는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우리는 때때로 거룩을 잊어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출 40:1)

기도 제목 ① 땅의 것으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주 달린 십자가만을 따르게 하소서. ② 헌신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선교위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움받은 일꾼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번제는 바치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로 드리는 번제(3~9절),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10~13절),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14~17절) 번제의 종류가 제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 것은 드리는 자의 경제적 형편을 배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 번제를 드려 죄사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축물의 크기가 아니라, 어떠한 생축물을 사용하여 번제를 드리든지 간에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 10절)

특히 헌제자는 희생동물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어 안수한 후에 희생동물을 직접 죽였습니다. 이는 헌제자가 제물을 친히 죽임으로써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헌신의 다짐을 고백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 짐승을 보면서 ‘속죄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는 반드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드려야 했습니다. 이 회막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으며 번제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회막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회막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찌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레 1:4)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소제란 고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쪼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의 재료는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오직 순전한 고운 곡식가루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며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겠다는 맹세의 의식이었습니다. 곡식을 세밀하게 간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림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제의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11절) 왜냐하면 누룩과 꿀은 그 발효성 때문에 죄를 번지게 하는 것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룩과 꿀을 제한하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13절) 이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소금과 같은 요소가 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서 순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갈 5:24) 참된 회개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찌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찌니라”(레 2:11)

기도 제목 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소서. ② 금요찬양집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화목제는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때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때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 제물은 헌제자와 제사장의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기름을 제외한 부분은 헌제자와 제사장의 몫이 되어 제사를 마친 후 성막 뜰 안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과 인간 및 인간 상호간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물 위에 사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화목제는 번제와 다른 제사인데 왜 화목 제물을 번제물 위에 사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번제물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상징하므로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찌니”(레 3:1)

기도 제목 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CMTC훈련을 섬기는 분들이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속죄제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사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 규례는 제물에 따라 드리는 방법만을 언급한 다른 제사들과 달리 신분에 따라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1~12절),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13~21절), 족장을 위한 속죄제(22~26절),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27~35절)로 구분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13~21절) 백성 개인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값진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요구대로 이 세상의 어떤 제물보다 귀하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찌니라”(레 4:11,12)

기도 제목 ①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참된 회개를 하게 하소서.
② 전반기 교육훈련원 개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천국일꾼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 후반부(14~19절)에서는 속건제의 규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죄사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제사로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호와와 성물(聖物)을 범과했을 경우(14~16절)와 둘째, 여호와와 금령을 범했을 경우(17절)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6장에서는 셋째,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레 6:1~7)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속건제는 다른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는 달리 배상의 성격이 특히 강합니다. 이는 속죄의 근본정신인 화해를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배상, 즉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하여 스스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 죄 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의 완전한 속건 제물이 되셨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을 위한 속건 제물로 삼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사 인간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며 참된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레 5:18)

기도 제목 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천국일꾼들이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뜻과 일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과 7장은 지금까지 규정한 각 제사의 규례(1~5장)를 새로운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요약 재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번제의 규례(8~13절), 소제의 규례(14~18절),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특별 소제 규례(19~23절), 속죄제 규례(24~30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번제와 관련된 규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9,12,13절)고 명령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번거롭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제의였습니다. 원래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라”(13절)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 연관된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령을 소멸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 보아야 합니다. 늘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로 이어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언제나 지속해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찌며”(레 6:12)

기도 제목 ①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소서. ② 진실된 십자가의 증인이 일어나 곳곳에서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는 화목제 규례에 대한 보충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화목 제사 후 공동식사에 관한 규정입니다.(11~21절) 이 경우 부정한 자는 이 공동 식사 자리에 참여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동물의 피와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입니다.(22~27절) 셋째,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정입니다.(28~34절) 요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과 거제로 드려진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오직 맡겨진 거룩한 직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몫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제사 중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즐거운 제사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정한 상태에서는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없었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없었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우리는 화목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바치신 주님을 늘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참된 회개를 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화목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레 7:20)

기도 제목 ① 화목하게 하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은총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회막에서 거행될 제사의 규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1~7장), 이 장에서는 회막에서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을 성별하게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을 물로 정결케 한 뒤(6절)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7~9절) 거룩한 기름(관유)을 부어(12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위임의식을 마친 모세는 이어 위임식 제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위임식 제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드려졌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위임의식에 앞서, 먼저 온 몸을 씻어내는 행위는 육체적인 부정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죄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히 10:19~22) 이점은 위임식이 끝난 후에 드린 위임식 제사의 순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임식 제사 중에 죄를 속하게 하는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졌으며, 그 다음에 헌신과 충성을 서원하는 번제를,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한 소제를 겸한 화목제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진정한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길 바랍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레 8:13)

기도 제목 ①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매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 선향 목자로 비유하시며 자신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양을 지키고 인도하며 심지어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라도 주는 목자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구속 사역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1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심은 참 목자이신 자신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즉,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감 같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 노릇을 하였으나 스스로 말씀을 배척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고 시비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자신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26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이심을 증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향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33절)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기도 제목 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며, 자기부인과 더불어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잘 나타내어 주는 부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알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지만,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셨습니다.(요 14:6) 그리고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밝히십니다.(25절) 즉,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26절)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구속 사역의 핵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를 살리시어 자신이 생명과 부활의 주이심을 증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진리가 드러날수록 악한 세력의 반대가 더욱 심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닥쳐오는 어떤 악한 세력의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기도 제목 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좇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남전도회 중심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동참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 주시고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행위는 향유의 향기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헌신의 모습을 증거해 줍니다.(3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향유의 금전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를 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전파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40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리아가 적극적인 수용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유대인들은 적극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귀하게 여겨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42,43절)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리아와 같이 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전파하여야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 12:3)

기도 제목 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이 증거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세계명을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명하신 교훈과 예언은 제자들의 사명과 앞일을 밝히 보여 준 것이며, 또한 세계명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 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써 진정한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35절)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종이 상전에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있느냐며 강하게 거부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예수님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한 본을 보이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서 그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서로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며 겸손히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섬김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기도 제목 ①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 시작 15분 전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이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임을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남아있게 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또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영접하여 그곳에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3절)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평강에 대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롬 8:39)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기도 제목 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수요성경공부와 교사 양성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 의하여 잘려지기 때문이고, 열매 맺는 다른 가지의 영양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농부가 귀히 여겨 깨끗하게 해 줍니다.(2절) 더 좋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교훈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4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나무의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계명은 새계명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12절)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아도 사랑으로 인내하며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기도 제목 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새계명을 지키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②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음으로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때가 이르면 죽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근심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을 위하여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7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은 모든 믿는 자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부터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기쁨과 담대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기쁨과 감사로 영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33절)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기도 제목 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FMTC 현지 선교사 준비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자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은 하나님과 자신과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믿게 된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1절) 분명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시된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3절)이라는 말씀은 바로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21절) 이 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나누는 기도이며(1~5절),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6~12절),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으며(13~19절),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는(20~26절)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과 영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기도 제목 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봉사위원회에 속한 자원봉사부원들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18~21장까지 이어지는 요한복음 종결부의 시작부분입니다. 하나님인 성자 예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 수난을 통하여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1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신 사실을 기록합니다.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아셨으나 스스로 체포당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희생이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어 12~27절은 예수께서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이바에게로 끌려가시던 중 이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실질적 권세를 갖고 있었던 안나스의 집에서 심문 받으신 사실과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8~40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본디오 빌라도의 심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이기심과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무죄 선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유월절 특사로 가이바를 택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고 …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3)란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인간의 사악함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이바에게 보내니라”(요 18:2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기까지 당하신 고난 주간 금요일 낮의 사건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6절은 당시 유대 주재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장면이고, 이어 17~30절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수욕을 받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패역함은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빌라도는 예수의 패를 직접 써서 붙이게 하였는데, 그 패에 ‘유대인의 왕’ 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 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도다”(19절)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몰랐기에 신성모독과 정치적 반란으로 규정하여 주님을 정죄했지만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참 유대인의 왕이심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서 31~37절은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으로 물과 피가 흘러나왔으나 다리는 꺾지 않은 사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36,37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성취된 구속 사역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 19:30)

기도 제목 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인간들의 사악함을 보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서는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에 따라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의 빈무덤을 확인한 사실을 상세히 증거합니다.(1~10절)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두 천사를 목격한 사실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또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게 하신 사실을 보도합니다.(11~18절) 이어 19~23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롯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들(눅 24:33)에게 직접 나타나사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복음 전파의 수행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24~29절은 제자들에게 보이신지 10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열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도마가 직접 예수를 목격한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29절)라고 하십니다. 혹시 도마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의심하여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 20:29)

기도 제목 ①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자)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심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의 일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짐으로써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이전의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패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에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늙어서 순교당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순교함으로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8)

기도 제목 ① 주께서 명하신 주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쫓게 하소서. ②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천국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증거에 이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마지막 40일 동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증인의 삶에 대하여 명령하시며, 소수의 공동체를 다시 재정비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머무를 것과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사역은 온 세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1~7장), 유대와 사마리아(8:1~11:18), 땅 끝(11:19~28:31)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어 전해야 하며 그 후 예수님은 저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세계만방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매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기도 제목 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② 모든 천국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는 오순절에 이르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그날은 세계의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한 주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합니다.(14~36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뵈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죽인 사실을 회개하고 이것을 믿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찢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었고 적어도 메시아를 죽이는 데에 동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3천 명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새로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의 교제는 풍성했습니다.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교회 속에 요청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4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행 2:36)

기도 제목 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이들의 회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② 전도위원회에 세움받은 모든 일꾼들에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얏은뱅이 치유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장은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주력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얏은뱅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실재성을 나타내 줍니다. 얏은뱅이의 일로 놀란 무리들은 모두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할 자연스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이었음을 말하며 모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는 회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불과 몇 달 전 예수님은 성의 복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종말인 줄로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서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얏은뱅이는 육적 양식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영적 양식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당장 급하다고 하여 육신의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하며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행 3:14,15)

기도 제목 ① 얏은뱅이와 같이 육적인 것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것을 구하며 찾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교회의 세위집'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앓은뱅이를 치유한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자 박해와 반대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고, 그들은 물기를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절)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의 이 물음을 일축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한 건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대답하였고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가 그들의 담대한 증거에 무척 놀랐습니다.

공회원들은 은밀히 의논한 후에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이 산헤드린의 명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공회원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관원들의 위협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20절)라는 말씀과 같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좇는 결단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구역예배교재

3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의 삶이 황량해진 이유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에 인생의 발은 매우 심한 기근 중에 있습니다.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슬픔을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우리 앞에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열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302	암 8:11	기 근	기근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된다
0309	사 53:3	슬픔의 사람	슬픔의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0316	사 53:6	우리는 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다
0323	사 53:8~12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기 근

| 초점 |

기근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된다.

| 찬 송 |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 꽃 같이

찬송가 225장 새 예루살렘 복된 집

| 본 문 | 아모스 8:11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
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말씀의 기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복음도, 주님의 말씀도 없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영적 기근입니다.

암 8:11

※ 나의 영적인 상태는 기근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닐지라도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교만과 외식으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요 8:37 / 나도 너희가 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 없는 곳에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생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물러갔
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 6:68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_____이 계시
매 우리가 _____

오늘날 교회는 교제와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을 주선하는 단체로 전
락하였습니다. 설교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습니다.
회중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
니다.

행 5:19,20 / 주의 □□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의 □□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 교회는 거대한 기갈에 허덕이고 있으며 사람들은 굶주려 죽어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교회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요 6:35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_____이니
_____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_____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초가 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기초가 없는 불완전한 공사에 불과합니다.

마 7:24,25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데 견고한 기초가 되며 예수님
은 그것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엡 2:20 /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
도 예수께서 친히 _____이 되셨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마 16:18 /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위에 내
를 세우리니 음부의 가 이기지 못하리라

많은 교회들이 문화를 강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살 길은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전 3:11 /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_____가 없으니 이 터는 곧 _____라

믿음을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 없는 곳에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없습니다.

벧전 1:23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줍니다.

롬 10:17 / 그러므로 _____에서 나며 _____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일 5:4,5 / 대저 _____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_____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십자가로 路

이번 주일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양식과 물질은 풍부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고후 8:9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하게 되심은 그의 함을 인하여 너희로 케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은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부요해 질 것입니다. 영적 기근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이번 주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기근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소서.
2. 2007년 제2차 성찬식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3.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2과 슬픔의 사람

| 초 점 |

슬픔의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 찬 송 |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송가 142장 영화로신 주 예수의

| 본 문 | 이사야 53: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음으로 路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슬픔을 겪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음을 터뜨리며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는 마지막 한숨을 내쉬며 생을 마감합니다. 출생과 죽음, 그 사이는 고뇌와 슬픔의 시간입니다.

시 90:10 /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은 □□와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기에 능히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만큼 깊고 큰 위로는 없습니다.

※ 최근에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경험한 주님의 위로가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고후 1:5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예수님은 “멀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요 1:11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막 6:4 /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가 자기 □□과 자기 □□과 자기 □□ 외에서는 □□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 27:41

여러분은 거절당하는 슬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 슬픔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은”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는 진정한 슬픔이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신 주님께 자신의 가장 깊은 슬픔을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넘칩니다.

히 4:16 / 그러므로 우리가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를 얻기 위하여 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후 12:9 / 내게 이르시기를 내 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열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은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열시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고독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마 26:56

셋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마 26:38~45) 유다는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마 26:49) 주님이 법정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주님을 보호하거나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외면하셨습니다.

마 27:46 /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_____ 하는 뜻이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고통을 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 28:20 / 볼찌어다 내가 세상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14:18 / 내가 너희를 ☐☐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십자가로 路

이번 주일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조차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히 13:5 / 내가 _____ 아니하고 _____ 아니하리라

히 4:15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을 받은 자로되 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극한 슬픔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은총으로 가득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슬픔의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간절한 기도 |

1. 슬픔 가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2.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3.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3과 우리는 다

| 초점 |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다.

| 찬송 |

찬송가 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송가 327장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 본문 | 이사야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죽음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이 “모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롬 3:23

롬 3:12

다시 한 번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딤후 2:6 / 그가 □□ □□을 위하여 자기를 □□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요일 1:7 /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하고 그 아들 □□의 □가 우리를 모든 □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 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롬 3:10 / 기록한 바 은 없나니 도 없으며

시 14:3 / 치우쳤으며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도 없도다

우리들도 죄인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자신 역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받을 상황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롬 6:23 / _____은 사망이요 _____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 9:27 / _____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_____이 있으리니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주실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신의 길을 좇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옥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좇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6:24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법, 선하심, 더 나아가 그분의 은총에 대항하게 됩니다.

롬 5:8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_____ 으로
하나님께서 _____ 하셨습니다

주님은 반역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소위 하나님의 선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요 1:11)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서로 담합했습니다.

마 27:1 /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를 죽이려고 함께 하고

신자들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값을 전액 다 치르셨습니다.

롬 5:10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되었은즉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을 얻을 것이니라

고후 5:21 / 하나님이 ☐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그에게 주셨으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벧전 1:21

계 7:9,10 /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로 외쳐 가로되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맡겨졌습니다.

십자가로 路

여러분은 자신에게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 53:6

요일 4:10 / 사랑은 여기 있으니 _____ 오
직 _____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총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2.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늘 회개하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3.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4과 십자가의 승리

| 초 점 |

십자가의 승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 찬 송 |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본 문 | 이사야 53:8~12

⑧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 ⑫ 이렇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으로 路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배척당하시는 우리의 구속자, 고통당하시는 우리의 목자, 상함을 받는 우리의 구세주, 슬픔의 사람, 침묵하시는 어린 양,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십자가가 지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 53:8 / 그가 □□과 □□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 받을 내 백성의 □□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겨 악한 자들과 함께 묻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고귀하게 묻히셨습니다.

※ 당시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과 예수님을 장사하였던 그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사 53:9 /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_____ 그 묘실이 _____

진실로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면 서도 동시에 십자가의 승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십자가의 승리, 부활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는 슬프고 절망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 53:10 /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을 □□하리로다

제물로 드러진 후에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육체적으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곧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서 자신의 씨를 보게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 곧 여러분과 저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부분이었습니니다. 지금 그 계획은 실행 중입니다.

고전 15:3,4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복음임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의롭다 하심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 곧 극한 주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켰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 53:11 /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게 하며 또 그들의 □□을 친히 □□하리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죄 값은 십자가에서 청산되었습니다.

롬 3:23,24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_____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_____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 19:30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_____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롬 5:1

십자가의 승리, 중보기도

십자가가 있는 곳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사 53:12 / ...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_____ 하시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지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롬 8:34 / 누가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자시니라

히 7:25 /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높이 세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 2:10

십자가로 路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자신에게 무슨 위로를 주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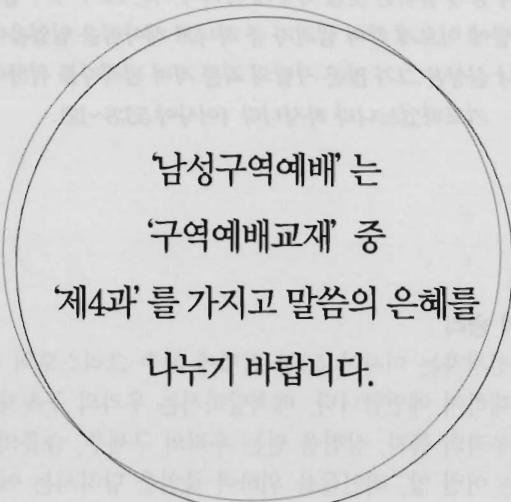
롬 8:26

이번 주일은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 위에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2.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3.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사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

⁽⁸⁾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끌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

⁽¹²⁾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3:8~12)

십자가의 승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배척당하시는 우리의 구속자, 고통당하시는 우리의 목자, 상함을 받는 우리의 구세주, 슬픔의 사람, 침묵하시는 어린 양,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가 예언했던 모든 것은 7백년 뒤에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갈보리를 보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합니다. 그는 십자가가 지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역설합니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끌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궤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8,9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들, 군병들과 수많은 악한 무리들은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침을 뱉었고, 찌르고 때렸으며,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겨 악한 자들과 함께 묻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고귀하게 묻히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십자가의 승리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부활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를 읽어보면 10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슬프고 절망적인 내용뿐입니다. 그 구절들을 더 깊이 묵상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10절) 제물로 드러진 후에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곧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서 자신의 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 곧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은 실행중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바울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는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복음임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의롭다 하심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 곧 극한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켰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죄 값은 십자가에서 청산되었습니다. 로마서 3:23,24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요 19:30)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아멘.

십자가의 승리, 중보기도

십자가가 있는 곳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 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12절)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

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34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25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높이 세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 2:10)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며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빛은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지불했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 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회지도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7년 3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하종철(1-7일) 정충신(8-15일) 강명구(16-23일) 전성원(24-31일)

구역예배교재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